

국별 리포트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²	G D P	128억 달러 (2011년)
인구	1,431만 명 (2011년)	1 인 당 GDP	895달러 (2011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el
대외정책	친서방 외교중시	환율 (달러당)	4,062 (2011년 평균)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고 있음. 크메르인(90%), 베트남인(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일부에서는 불어를 사용함.
-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훈센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지나친 권력 집중화로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캄보디아는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내전 및 킬링필드 등의 영향으로 주변국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편이나 정부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로 최근 양호한 경제발전을 시현하고 있음.
-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다른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인해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제성장률	6.7	0.1	6.0	6.1	6.2
재정수지/GDP	-0.3	-4.2	-2.9	-2.6	-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0	-0.7	4.0	5.5	4.0

자료: IMF 및 EIU.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성장률 회복세

- 2010년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 증가, 관광산업 활황, 외국인투자 증가 및 쌀 생산량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6.0%을 기록함.
- 2011년은 대규모 홍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EU의 원산지조건 완화에 따른 의류, 신발 및 쌀 수출 증가, 부동산 시장 활황 및 관광산업 성장으로 약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금년에는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 제조업 호조 및 쌀 생산량 증가 등으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취약한 세수 기반 등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캄보디아는 세수 기반 취약, 세금 징수 부진 및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함.
- 2010년 경기 회복과 정부의 새로운 재산세 도입 및 세수행정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지출(2010년 GDP 대비 20.7%)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9%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2.6%를 시현함.

- 금년에는 국방비 지출증가, 외채 이자 지급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폭은 전년보다 확대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류비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캄보디아는 원자재, 자본재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2010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식료품가격 상승,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4%를 기록함. 2011년에도 내수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금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 및 물류비용 감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의류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제조업의 대부분은 봉제, 의류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의류산업은 GDP의 14%, 상품 수출의 72%를 차지하며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의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 또한,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대상국(2011년): 미국(42.1%), 캐나다(8.7%), 독일(8.3%), 영국(8.0%) 등

□ 낮은 인프라 수준

- 캄보디아는 도로, 전기, 용수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자가발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료가

인근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2년도 국제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42개국중 76위로 인프라수준이 낮은편이며, 분야별로는 도로(66위), 철도(96위), 항로(76위), 전력공급(57위)임.

□ 부정부패 심각

- 캄보디아는 세관, 세무, 행정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경제 성장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dex: TI)가 조사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캄보디아는 총 182개국 중 164위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와의 인접한 위치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앙코르와트는 세계적 관광지 중 하나로서, 최근 호텔과 리조트 및 기타 위락시설이 집중된 거대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 부문이 앙코르와트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시아누크빌 중심의 해양관광 리조트 개발, 북동부 고원지대 환경관광 개발 등을 통한 관광 지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음.

□ 석유 생산 예정으로 석유의존도 축소

- 캄보디아의 원유 발굴은 2002년 시추작업을 시작한 미국의 셰브론(Chevron), 일본의 미쓰이(Mitsui), 한국의 GS칼텍스 등 3자 합작 컨소

시업이 2005년 캄보디아 남부 해안 A블록에서 상당량의 원유매장을 확인하면서 본격화되었음.

- 당초에 2011년 석유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와 인접국인 태국과의 유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실제 생산은 201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추후 석유 생산이 가시화되면 석유수입 감소를 통한 캄보디아 정부 수입 확대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정책성과

□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 추진

-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제고, 고용창출,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정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발표함. 이의 달성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군부 개혁, 사법 개혁, 행정개혁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성장을 위해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중임.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빈곤층 확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경제개혁 등을 통해 2007년 기준 30.1%인 빈곤율을 2015년까지 19.5%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법인세 9% 부과 및 8년간 과세 면제 등의 투자법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상 수 지	-1,051	-931	-879	-1,124	-1,551
경상수지 / GDP	-10.2	-9.0	-7.8	-8.8	-11.0
상 품 수 지	-1,800	-1,634	-1,648	-2,195	-2,705
수 출	4,708	4,196	5,143	6,018	6,137
수 입	6,508	5,830	6,791	8,213	8,842
외 환 보 유 액	2,291	2,744	3,150	3,450	3,872
총 외 채 잔 액	4,215	4,364	4,624	5,029	5,410
총외채잔액 / GDP	40.7	41.9	41.1	39.3	38.1
D. S. R.	0.9	1.2	1.1	1.0	1.0

자료: IFS 및 EIU.

□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지속적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지속

- 캄보디아는 섬유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 및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로 소비재,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으로 의류를 포함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나, 원유, 섬유 및 자본재 수입 또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음.
- 유가상승과 높은 자본재 수입으로 2011년 상품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여 2011년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2012년에도 세계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로 상품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증가

- 2010년에는 상품수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7.8% 수준으로 감소함.

- 2011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가 33%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GDP 대비 8.8%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동일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구조 점진적 개선

- 외국인 투자 증가 및 국제 원조 유입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3억 달러에서 2012년 기준 약 39억 달러를 기록함.
- 총외채잔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GDP 대비 규모는 2006년 48.5%에서 2011년 39.3%로 개선되었으며 2012년에는 38.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최근 4년간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캄보디아국민당의 지속적인 집권으로 정세 안정 지속

- '08년 쿠데타로 집권한 훈센 총리는 취임한 후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중임. 2008년 7월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총 123개 하원의석 중 90석을 차지함에 따라 훈센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
- 금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훈센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3년 예정인 총선에서도 캄보디아국민당의 압승이 예상됨.
- 한편, 삼렝시당과 인권당이 연합하여 캄보디아국민당에 대응하는 민주변화운동당(Democratic Movement for Change)을 형성하였으나, 당분간 캄보디아국민당에 대항할만한 정치 세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훈센 총리의 독재체제에 대한 우려 증가

- 정부는 시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고 반정부 조직에 대해

강제로 해산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인권단체 및 내부로부터 독재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 사회동향

□ 노사갈등 등 사회불안 요소 잠재

- 최근 의류제조 부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임금인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수입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지주 및 기업들이 집권여당 및 군부와 결탁하여 농민들에게서 농지를 빼앗음에 따라 빈부 및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태국과의 외교적 갈등 완화 조짐

- 2008년 7월, 캄보디아-태국 간 오랜 분쟁 지역이었던 국경 부근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 대해 캄보디아가 태국 외무장관의 서명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면서 동 사원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양국의 분쟁이 격화되었음.
- 이후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며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는 등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2011년 7월 태국 총선 이후 잉락 친나왓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경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맞이함.
- 그러나 여전히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후 추가적인 국경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인해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주요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정치체제 및 인권탄압에 대해 비판 없이 대규모 원조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 역시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One China’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다른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친 베트남 성향을 지닌 훈센 총리의 집권 기에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 낮음

- 경기회복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됨에 따라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2.11)	D1 (2012.1)
OECD	6등급 (2012. 3)	6등급 (2011.3)
S&P	B (2011.10)	B+ (2007.4)
Moody's	B2 (2007.5)	B2 (2007.5)

* 동국은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캄보디아는 2007년까지 OECD로부터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았으나, 2008년 4월에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점진적인 경제성장,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11년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재정건전성 저하로 캄보디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의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수은: 최단기 및 중기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는 개별심사
- 독일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 (1964), 투자보장협정 (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 (2001), 문화협력협정 (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캄보디아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273	333	451	편직물, 자동차, 기타섬유제품
수 입	18	43	87	의류, 임산부산물, 갑각류
합 계	291	376	538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1년 교역규모는 5억 3천 8백만 달러로 수출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4억 5천 1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02.3% 증가한 8천 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편직물, 자동차, 기타섬유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 임산부산물, 갑각류 등임.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투자는 2012년 6월 말 기준 신규법인 676건, 총 18억 3,003만 달러 투자금액(누계기준)을 기록함.

VI. 종합 의견

- 캄보디아는 2011년에 EU의 원산지조건 완화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6.1%를 기록함. 금년에는 관광산업 호조, 쌀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캄보디아는 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세수행정의 비효율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 제품 경쟁력이 낮아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정치적 영향력 및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훈센 총리는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이나 독재체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사회 모든 분야에 일반화 되어 있는 부정부패는 경제개발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생활비 상승, 빈번한 파업 발생 등 사회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이루어져 있고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서은주(☎02-3779-5705)
E-mail: seounchu@koreaexim.go.kr